

김영록 전남지사, 세계적 해상풍력기업 베스타스 투자 유치 성공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속적 노력...덴마크 코펜하겐서 3000억 투자협약 목포신항 배후단지에 건립...아태지역 최초 연간 최대 150대 터빈 생산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심혈을 기울여온 세계적 해상풍력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풍부한 자원,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경쟁력 등의 한계를 겪고 있는 전남의 해상풍력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영록 지사는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 A.P. 플라-머스크 A/S, 목포시와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

베스타스와 머스크는 공동으로 투자하는 금액은 약 3000억원으로,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약 6만평)에 연간 최대 150대의 터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이 배후단지는 아시아에서는 최하다.

또 베스타스는 국내 해상풍력 연관 부품기업 등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부품 국산화 및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머스크는 신규 물동량 창출 등을 통해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글로벌 1위 터빈사인 베스타스와 세계적 통합 물류기업인 머스크의 이번 공동 투자는 단순히 터빈공장 하나를 전남에 유치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기 핵심부품인 터빈 공장의 전남 유치는 베어링,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협력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전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태지역 해상풍력 수출 전진기지로 도약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머스크의 목표인 투자는 무안공항·목포신항을 중심으로 항공·해운 물류거점의 교통보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남권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토미 라베 닐슨 베스타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빈센트 클러크 머스크 글로벌 CEO에게 이번 투자 결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베스타스의 터빈공장이 계획대로 설립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투자협약으로 베스타스 터빈공장 유치를 추진함에 따라 목포신항과 해남 화원산단을 연계한 해상풍력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배어리, 변압기 등 부품업체와 타워, 하부구조, 케이블 등 연관기업 유치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립목포대학교 등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베스타스 터빈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200여명의 기능 인력과 터빈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유림을 순방중인 김영록 전남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22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베스타스 토미 라베 닐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오른쪽 두 번째), 머스크 빈센트 클러크 글로벌 CEO(왼쪽), 박홍률 목포시장과 해상풍력 터빈공장 목포신항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A)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5·18민주화운동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 전 AP특파원 별세

향년 76세...80년 5월 현장 취재 "승고한 기자정신 높이 평가" 추모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해외에 알린 테리 앤더슨(Terry Anderson) 전 AP통신 특파원이 별세했다.

AP통신은 테리 앤더슨 전 AP통신 특파원이 21일(현지시간) 뉴욕주 그린우드 레이크에서 별세했다는 보도를 냈다. 향년 76세.

고인은 1947년생으로 해병대에 입대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귀국 후 대학에서 저널리즘과 정치과학을 공부한 뒤 AP통신에 입사했다.

고인은 1980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를 찾아 5·18 현장을 취재 보도했다. 기사에는 "광주 시민들은 (기자들과 담화에서) 시위는 처음에 평화롭게 시작됐지만, 공수부대들이 18·19일 시위자들을 무자비하게 소총과 총검으로 진압하면서 격렬한 저항으로 변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고인은 1997년 '5·18 특파원 리포트' 책에서 "5·18은 사실상 군인들에 의한 폭동이었다.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찬 시민들 앞에서 이들은 시위대를 추격하며 군봉으로 때리고, 최후탄은 물론 총격을 가하기까지 했던 것이다"는 등 문구를 남겼다.

지난 2017년에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5·18 기념재단 주관으로 열린 5·18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5·18 당시 취재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학술회에서 고인은 5·18 당시 택시를 타고 밭길을 걸어 광주에 진입해 임시 시체안치소, 병원 영안실, 상무관 등을 돌며 단 하루 만에 시체



테리 앤더슨 전 AP통신 특파원(가운데)이 지난 2017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5·18국제학술회에서 5·18 당시 취재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100구를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대부분 총에 맞거나 몽둥이질 당한 상태였다. 고인은 1980년 5월 27일 자신이 코앞에서 목격한 도청진압작전과 관련해서는 "전문적 군사 작전, 전형적 시가지 전방이었다"고 비판했다.

"계엄군이 재진입하는 새벽 관광호텔(금남로 전일빌딩 맞은편) 방의 창을 통해 군의 작전을 볼 수 있었다. 전문적 군사 작전이었다. 공수부대는 옥상부터 차례로 도청을 탈환해 나갔다. 몰래 사진을 찍으려다가 저격수의 총격을 받았다. 내가 외국기자인 줄 알면서도 사격을 한 것이다. 불에 탄 윤상원의 시체도 봤다"고 증언했다.

고인은 5·18 이후 레바논에서 레바논-이스라엘 전쟁을 취재하다 1985년 무슬림 시아파 단체에 납치돼 7년 가까이 구금됐다 풀려났으며 이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플로리다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가르치다 2015년 은퇴한 뒤 버지니아주 북부에 있는 작은 말 농장에서 지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22일 추도 성명서를 내고 "테리 앤더슨 기자의 승고한 기자정신으로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정의를 위해 앞장섰던 광주시민들의 용기와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며 "언론인으로서 5·18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광주에 대한 애정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진심어린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18 진실규명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기자의 공적을 기리며 고인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5월1~17일 개·고양이 대상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서 기르는 개·고양이이며, 지난해까지는 개에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양이까지 확대 지원한다. 개·고양이 모두 동물등록을 마친 개체만 가능하며, 임신 또는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이 안될 수 있다.

접종을 희망하면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장지(외장형·인식표)를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은 평소 2만원 내외지만 이 기간에는 5000원만 내면 된다.

광주시는 해마다 봄과 가을 두 차례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백신 4000두

분량을 지정 동물병원 80여 곳에 지원한다. 지정 동물병원 현황은 광주시 누리집 공지사항과 120콜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견병은 사람과 개를 포함한 모든 온혈동물에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염된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물거나 핏덩이를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국내에서는 2014년 이후로 발생 보고가 없었지만, 너구리 등 야생동물과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남택송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주말반 등 신설

전남도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을 주말반과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직장생활로 주중에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자 편의를 위해 신설됐다.

맞춤형 교육은 전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다. 18세 이상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며 활동지원사 활동을 바라는 도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 권역별로 지정된 교육기관 3개소에서 3천명 수료생 목표로, 지난해보다 14회 늘어난 총 59회차로 확대 편성에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현장실습 10시간)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유사경력자 등이 수강하는 전문과정(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현장실습 10시간)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장애의 이해 및 인권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가져야 할 직업윤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도전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활동지원사 양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010-9229-3530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원룸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시공문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향2길3(서향동)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